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분화 된 평면공간에서의
일상적 사물의 결합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임혜린

이분화 된 평면공간에서의
일상적 사물의 결합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임 혜 린

인 준 서

임혜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 춘 옥 인

심사위원 박 영 근 인

심사위원 조 병 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작업들 중 2010년 9월에 있었던 개인전<The still: logical conversation>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본인의 작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품의 전개과정과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의미론적인 부분과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분석한 것이다.

<The still: logical conversation>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일상적 사물과 공간을 상징화 시킨 작업이다. 또한 기억된 단면의 조각을 상징적인 사물 속에 함축시킴으로써 관찰된 대상을 객관화시키고, 그 장면을 사물 안에 경험과 상황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술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물로서,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주변상황과 일상적 삶의 모습들은 중요하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개인의 일상과 내면의 기억은 무효할 수 있지만 때론 매혹적인 삶의 본질로 다가올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의 소재인 사물들은 일상적 공간 안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본인의 경험과 흔적을 통해 재창조되어 작품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기억의 이미지들에서 야기된 일상적 사물들은 삶 속에서 일어난 상황과 흔적으로 야기된 본인의 잠재된 감정의 표출을 조형화 시킨다.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단순히 물질적인 자극으로서가 아닌 의미를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가시화 하고자 한다. 또한 경험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허용하며, 주관적인 경험의 의향을 통하여 내면세계라는 삶의 본성의 한 부분을 표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회화에서 일상성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다루

고, 작품 안에서 작가들이 일상적 사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상사물이 본인의 작품의 주제가 된 형성배경과 본인으로 하여금 일상사물이 갖는 상징성을 서술한다. 또한 현대 미술 안에서 본인의 작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측면.....	3
1) 일상과 예술.....	3
2) 일상적 사물의 해석과 표현.....	5
3) 기억, 흔적으로서의 일상적 사물.....	9
2. 조형적 측면.....	11
1) 이분화 된 평면적 공간속의 사실적, 추상적 사물.....	11
2) 체험된 사물과 공간의 표현.....	14
3) 색채와 시간성.....	17
3. 작품분석.....	19
III. 결론	35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Father 112.1x145.5cm oil on canvas 2010.....	25
[작품2]	Mother 145.5x97.0cm oil on Canvas 2009.....	26
[작품3]	Living room 72.7x90.9cm oil on Canvas 2009.....	27
[작품4]	Music pleasure 145.5x97cm oil on canvas 2009.....	28
[작품5]	Complex 145.5x97.0cm oil on Canvas 2009.....	29
[작품6]	Flower 112.1x193.9cm oil on canvas 2010.....	30
[작품7]	Flowerpot 91x116.8cm oil on canvas 2010.....	31
[작품8]	Autumn 91x116.8cm oil on canvas 2009.....	32
[작품9]	Shopping holic 90.9x72.7cm oil on canvas 2009.....	33
[작품10]	Perfume 90.9x72.7cm oil on canvas 2009.....	34

도 판 목 차

- [도판1] Pieter Claesz, Vanitas Still-Life,
oil on canvas, 39.5x56cm, 1630.....37
- [도판2] Marcel Duchamp, Fountain,
ready-made, 63x48x35cm, 1964.....37
- [도판3] Andy Wohol, Brillo Box Installation,
acrylic and silkscreen on plywood box,
17.35x17.35x14.2inches.....38
- [도판4] Robert Rauschenberg, Bed,
mixed materials and paint, 211x492cm, 1955.....38
- [도판5] Jim Dine, Rancho woodcut Heart,
painting on woodcut, 121.2x102.8cm, 1982.....39
- [도판6] Gary Humn, pollen and Coffee,
gloss paint on aluminium, Diameter:181.5cm, 2002.....39
- [도판7] Kara Walker,
좌 slavery! slavery!, cut paper on wall, 370x2590cm, 1997.....40
우 Darkytown Rebellion, cut paper&projection on wall
180x396inches 2002.....40
- [도판8] Vincent van Gogh, Vincent's Chair,
oil on canvas, 93x73.5cm, 1888.....40
- [도판9] Henri Matisse, La Blouse roumaine,
oil on canvas, 92x73cm, 1940.....41

I. 서 론

“일상성은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존재양식이다.” 또한 “일상은 분명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일상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되어지고, 기억된 과거의 이미지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복잡화 및 다양화 등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쉽게 왜곡, 변형되어질 뿐 아니라 망각되어진다.

‘일상(alltag)’ 이란 ‘날마다’, 늘 되풀이되는 ‘나날들’, ‘하루하루’, 또는 ‘그날그날’ 등을 뜻하고 어원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으로 유래하여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며 관례화되고, 습관화된 것을 말한다.¹⁾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과 일상에서 체험되는 사물이나 형상들은 시간을 통해 주관적 이미지로 각자 인식된다.

삶은 완성되는 법을 모른다. 그저 그렇게 끝도 없이 흘러왔던 대로 가버리는 ‘일상사’가 생을 채우고 있을 뿐이며, 일상은 개개의 특정성을 지닌 사물들과 마주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²⁾ 우리의 일상 속에는 많은 사물들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무한한 사물의 수만큼 사물이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는 개인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읽혀진다. 이전부터 미술 작품 속에서 사물은 은유, 상징, 감정이입 등의 형식으로 작가의 상상작용 속에서 의미를 갖고, 확대 해석된 감정이입의 산물로 표현되어져 왔다. 경험은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을 시각화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에 잠재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내재된 복합적인 감성을 끄집어내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본인의 의식을 표현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최중욱,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 지와사랑, 2000, p.171

2) 서동욱, 「일상의 모험」, 민음사, 2005, pp.8-9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술의 일부분으로써 예술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각자의 공간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예술’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기능이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식 하지만, 이러한 사물이 자신의 삶과 결부되는 계기를 갖게 되면서 특정한 사물에 대해 자신의 경험이 결부된 주관적인 의미와 감성이 개입된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감정들을 일상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성을 이입하여 형상화 하여 드러낸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사물들은 사물자체가 지시하는 의미 외에도 경험과 지식에 의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다양한 조형적 표현 방법을 통하여 본인 개인적 체험에서 벗어나 보는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의도를 담기위한 작품 표현 방식으로 대상을 단순화 시켜 평면화 된 이미지와 입체적 표현 이미지를 공존 또는 결합시켜 이분화 된 공간위에 배치한 조형성을 추구 하였다. 본인의 작품이 갖는 작품의도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표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과 조형적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서술하고자한다. 이에 본론 1장에서는 일상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일상과 예술에 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작품의 의도와 연결시키고 있고, 일상적 사물의 상징성을 기억과 흔적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본론 2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분화 된 조형공간과 색채의 시간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일상과 예술

본인은 한때 한 소재에만 집착하여 기법과 표현방법만을 달리해 작업을 이어감으로써 딜레마에 빠져있던 때가 있었다. 소재주의 그림은 그 소재에 대한 감흥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감상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그 긴 방황의 시간 끝에 다시 시작한 것은 ‘나’ 를 알아가는 작업이었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왜 표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특별한 개성도 특이한 일대기도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작업에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가장 쉽고도 다양하며 솔직한 작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일상은 매일 ‘반복적인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물이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객체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하여 본다면 일상적 사물의 의미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속에서 감각을 통해 인지된 사건을 담은 물건이라 하겠다. 막스 베크만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신비스러운 것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의 세계 그 자체의 경험적 이미지와 회화적인 표현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보다 본질에 가까운 작품은 없다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예술은 단순한 재현이나 모방에서 벗어나 본질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은 물(物) 자체의 세계 즉 그 본질의 세계에 대한 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³⁾ 삶

3) G. Dickie, 「미학입문」 오병남 역, 서광사, 1982, p.58

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즉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은 ‘사물을 눈여겨보는 기술’이다. 그리하여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 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유는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존재의 본질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일상적 공간 안에서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술은 대중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한다. 본인의 감성이 개입된 일상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삶과 예술의 유기적 통일을 주장하고 경험을 인간과 세계의 만남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은 일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경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과는 달리 예술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예술은 생활과정에서 예시된다고 보고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미학으로 예술이 인간의 일상으로 복귀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즉 일상생활과 경험은 미적인 것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예술의 원천이라는 것이다.⁴⁾ 이처럼 삶의 정상적인 과정과 미적 경험의 연속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미적경험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예술은 질적으로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험의 직접성과 완성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술은 본능적 욕구와 정서, 상상력 외에도 다양한 지성이 균형적으로 결합되고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본질을 갖고 있고, 일상적 생활환경의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예술은 관적인 표현이니 만큼 보는 사람 또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범한 소재들을 그림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상’이라는 예술을 하며 살아간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에 의하면 우리는 너

4)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연 옮김, 책세상, 2003, pp17-18

무나 사물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물들을 당연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사물을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상의 사물은 하나하나가 저마다 기능성과 실용성, 시각적 요소까지 감안되어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관념적으로 고정되고 만다. 그러나 일상적 사물이 그저 일상 속에서 수동적이고 보잘것없는 사물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시간을 같이 한 사물을 재인식함으로써 지난 시간 안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린다. 그 사물들은 그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입증함과 동시에 본인의 삶의 흔적을 상징하는 소재로 자리한다. 하나하나의 사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시간을 갖고 있고 그것들은 단순히 사물이 아닌 과거의 경험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 장치의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기억들을 무심히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표현방식에 집중해야한다. 인간은 개성적인 면과 함께 보편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지만, 본인과 관람자의 정서와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일상적 사물의 해석과 표현

‘still life’ 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의 ‘still- leven (움직이지 않는 자연의 사물)’ 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⁵⁾ 미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물의 표현은 정물화(still-life)라는 영역 속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고

5) 바니타스 정물 [Vanitas' still life] | 네이버 백과사전

볼 수 있다.

정물화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물건 즉 화초, 과일, 죽은 동물과 새, 악기, 식기, 책 등을 그린 회화로 네덜란드 정물화에서는 꽃이나 과일, 음식, 금속성 물체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자연을 상징화하고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또한 그 당시에 정물화 속의 사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 환경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18세기의 샤르댕이 그린 일상생활의 평범한 물건들은 고요하고도 균형 있게 표현하여 삶의 피곤함과 여유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정물에 나타나는 사물들의 상징성 중 특히 바니타스(vanitas)정물은 상징적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담고 있다. 바니타스는 무상(無常)의 알레고리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피터 클라스존6) (Pieter Claesz, 1597-1660)<도판1>의 그림을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메시지의 강한 전달을 위해 선택된 소재로는 깨어진 유리잔, 열려진 시계, 해골 등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바니타스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정물은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또한 정물화 속 사물이 담고 있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교훈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당시 상류층의 생활을 반영하기도 하였다.7)

기존의 미술작품에서 벗어나 기성품을 미술작품으로 주장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샘(Fountain)<도판2>은 남성용 소변기를 'R.Mutt'라고 서명해 받침대 위에 놓고 1917년 뉴욕에서 열린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내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새로운 의미의 차원을 부여하고 어디에나 있는 사물을 선택하여 재명명한 작업으로 과감하게 미술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 일상적인 평범한 물체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미학적인 차원으로

6) 피터 클라스존 (Pieter Claesz, 1597~1660) 네덜란드 정물화가
(<http://en.wikipedia.org/wiki/Pieter-Claesz>)

7) 진중권, 「춤추는 죽음」, 세종서적, p.259

로 이동시켰으며, 예술이 신성시하던 것들에 대하여 실험적인 시도와 표현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바꿔놓았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오늘날 작가들이 정물로 선택한 대상들은 대개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물건들이었다. 1960년대 미국의 미술을 주도한 팝아트는 우리 주위의 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소재로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예이다. 팝아트는 음식물, 캔, 코카콜라, 백화점상품 등을 즐겨 표현했는데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도판3>은 사물을 마치 진열장의 물건처럼 촘촘히 늘어놓아, 현대 사회의 획일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앤디워홀은 시대를 의미하는 사물로서 캠벨수프깡통, 코카콜라병, 브릴로(Brillo) 상자 등을 소재로 정물화를 표현하였다. 당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미국 사회가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과학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정보 홍수 속에서 문화적인 풍요를 누린 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간의 비개성화, 비감성화, 비인간화, 기계화된 사회를 만들어냈다.

팝아트 이후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소재들은 ‘일상적’이 되었다. 그 한 예로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1998)<도판4>의 ‘침대’라는 작품이 있다. 베개와 퀼트 천으로 된 이불 그리고 그 위에 가해진 표현주의적인 붓질이 매우 과격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라우센버그의 제작기법을 “앗상블라쥬(Assemblage)” 혹은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 이라고 하는데 “앗상블라쥬”란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만든다는 의미이고 라우센버그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주조한 용어인 “컴바인 페인팅” 역시 여러 가지 상이한 재료들을 결합시킨 회화라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앗상블라쥬(혹은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는 첫째, 칠하거나 그리거나 설계하거나 조각하는 방법 대신 모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원래 예술적 재료가 아닌 자연적 재료나 대량 생산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소재 또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작가로써 짐 다인(Jim Dine, 1935-)을 예로 들 수 있다. 짐 다인의 작업은 잠옷, 가운, 신발, 침실 등 일상적이고 평이한 삶의 단편을 소개한다. 다양한 양식과 표현방식, 주제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짐 다인의 예술은 대단히 개인적이면서 일반적인 복합적 형태로부터 나온 것으로써, 추상 표현주의의 예술지상주의적인 순수성과 마르셀 뒤샹의 영향을 받은 네오다다의 사상 및 일상적인 특징의 팝 아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짐 다인은 분명히 팝 아트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기존 작품 속에 존재하던 팝아트적 소재들을 그 자신의 주관적 체험의 투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키면서 표현성을 극대화 하는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 짐 다인은 오브제와 회화를 하나로 일치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짐 다인이 차용한 일상의 도구나 사물에 의해 작품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트(HEART)주제도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며 그의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 'Rancho woodcut Heart' <도판5>의 색깔이나 하트가 주는 느낌은 제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회화에 여러 가지 실험자세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짐 다인의 드로잉적 선 표현은 너무나 과감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라우셴버그가 지금까지도 팝 적인 개념과 방법의 일관된 틀 속에서 자신들의 고정화된 작품의 이미지를 고수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짐 다인의 지금까지의 작업여정은 이제 그를 단순히 '팝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규정짓기엔 꽤나 큰 변화를 수반해 왔음을 자신의 근작들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시기 그가 보여준 작업의 양식과 개념은 다른 팝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예술의 전통적 가치 체계에 전면적으로 맞선 다다이즘(dadaism)에 그 뿌리를 둔 것이었다. 작품 안에서의 전통적인 정물화는 작가들이 사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장르였다면 본인은 사물의 심상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본인은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생

성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사물 속에 투영시키고, 과거와 현재 속에 그리고 미래에도 기억되어질 이미지의 상상작용을 사물 속에 주관적인 기억으로 투영시키고 표현하고 있다.

3) 기억, 흔적으로서의 일상적 사물

예술은 현실세계에서 경험한 것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인간이 어떠한 새로운 것을 지각할 때에 예술작품이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얻었던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⁸⁾ 이 말은 예술가는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 이미지를 창작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술은 현실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상상적 대상(Imaginary objects)이라고 불리는 것일 수도 있다.⁹⁾ 예술 작품은 그것을 창조해 내는 작가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작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한 것으로서 내면의 주관적인 것이 창조 되었을 때 독창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일상의 대상들을 모방하고 있지만 예술가의 손을 거쳐 보여 질 때 일상적인 세계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기억이란 한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현재와 관련짓는 정신적 행위 및 과정이다. 또한 기억은 과거를 한편으로는 지나가버린 것으로 확정지으면서도 동시에 현재화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적 지위를 변화시킨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폴 리코어(Paul Ricoeur, 1913-2005)에 따르면 “시간이란 논리적 모순 즉 존재와 비존재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란 우리 의식에 뚜렷이 나타나지만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과거와 미

8) 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52

9) R.G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김혜련 역, 고려원, 1996, p.160

래에도 해당되고, 기억을 통해 과거는 현재와는 다른 시간에 속하는 비존재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지시 또는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의 기억과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결국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므로 그 자체로 시간성에 대한 성찰인 셈이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기억의 기호들은 우리에게 초현세적인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호들 덕분에 우리가 갑작스레 되찾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기억에 의해 전개되는 감각적 기호들은 진정 ‘예술의 발단’이며 우리를 ‘예술의 길’로 끌어들인다.¹⁰⁾ 또한 기억은 현실 속 자신에 의해 다시 조합되고 재배열되어 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의 원천이 된다.¹¹⁾

인간의 기억은 이전의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여 현재에 변하지 않고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상하고 다시 재구성 된다. 기억은 필요에 따라 재생되기도 하고 잊혀 지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의 기억은 강조되기도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사건이 기억의 구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일상이든 특별한 일이든 기억 속에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일상의 자취들은 본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일종의 부재의 징표들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소재는 단순한 일상이다. 일상적인 재료를 통해서 창조해낸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도 시적인 세계일 것이다. 본인은 작품 안에서 일상사물을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을 통해서 찾고 있다. 사물에서 기억과 흔적을 발견하고 기억된 단면의 조각을 상징되는 사물 속에 함축시킴으로써 관찰된 대상을 객관화 시키고, 그 상황의 장면을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술에서는 욕망의 대상을 직접적이면서 또한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상징을

10) 질 드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1997, p.90

11)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열화당, 1979, p.89

통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의 재현적 모방이 아닌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본인이 일상의 사물을 차용하게 된 것은 현실의 삶과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감상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재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일상적 사물은 본인과 일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그것을 상징적 매개체로써 나타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상의 단면이 사물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조형적 측면

1) 이분화 된 평면적 공간속의 사실적, 추상적 사물

예술로서의 회화작품의 조형적 표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형(Form)과 색(Color)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회화의 본질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시각예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조형언어와 결합하여 채색되어짐으로써 시각전달 기능이 생긴다.

“형태는 대상과 주제와의 거리를 지각하는데 효과적이고, 색채는 오직 느껴지며 본질적인 정서적 경험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준다. 또한 형태는 색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색채는 형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한다.” 12)

상징화(symbolization)는 셋방향의 연결 즉 상징을 만드는 창조(creating), 기존의 상징을 찾아내고 관계를 맺는 인식(perceiving), 즉흥적인 연결을 시도하는 극화(playing)로 이루어진다.13) 그것은 탐구의 즐거움을

12) 허버드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유일주 역, 을서문화사, 1982, p.74

13) 에릭부스,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강주현 역, 에코의서재, 2009, p.117

안겨주는 세계로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생한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상징은 미묘하게 우리를 자극하며 여운을 남긴다. 사물의 상징화는 구체적인 상징과 그 안의 추상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본인은 작품 속에 상징화된 사물들이 작품 관람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본인의 작업 속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은 관람자가 ‘경험하고 사고하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전체의 화면구성은 이분적인 구도인 상하좌우로 나누어지고 평면화된 배경과 사물 이미지간에 오버랩 (over-rlap)되는 구도를 가진다. 본인의 작품은 두 개로 구획되어진 평면의 공간위에 단순화된 실루엣표현과 명암법으로 표현된 실재 이미지의 재현으로 대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실루엣 기법은 구석기 시대 동굴미술, 이집트미술, 그리스 꽃병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발견된다. 실루엣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의 에티엔느 드 실루엣(Etienne de Silhouette, 1709-1767)의 이름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루이 15세 당시 프랑스는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장관이었던 에티엔느 드 실루엣은 국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철저한 긴축 정책을 펼쳤으며 그림도구로 초상화를 그리는 것 또한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여 모든 그림을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게 했다. 그는 극단적인 절약을 고집하여 귀족들의 반감을 샀으며 결국 실각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당시 프랑스에서 실루엣 풍이라고 하면 ‘인색하게 절약한다.’¹⁴⁾ 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했다. 실루엣은 특히 19세기 판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럽 판화는 실루엣의 빈번한 사용을 절제된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후 실루엣은 그림자나 모든 대상들의 외관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미술에서 실루엣은 흥미로운 주제이자 표현 방법으로서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예술가들은 그림자만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

14) 하마모토 다카시, 「색채의 마력」, 이동민 역, 아트북스, 2007, p.130

수 있어 실루엣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현대 작가들 중에서 게리 흄(Gary Hume, 1962-) <도판6>은 일상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가정용 광택 페인트를 사용해 대중문화의 복제물이나 일상의 주제들을 색채의 결합과 함께 실루엣을 추상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카라 워크(Kara Walker, 1969-) <도판7>의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재미있고 다채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조각이라고 여기면서 종이를 직접 오려서 벽에 붙이고 공간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본인의 작업의 경우 이분화 된 배경위에 사실적인 사물과 양면적으로 실루엣 이미지를 파편화 시켜 배치시킨다. [작품1]부분①과 [작품1]부분②는 사실적으로 묘사한부분과 실루엣 기법의 효과로 이분법적인 강한 대비로 나타난다.

[작품1]부분①은 평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인지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 하거나 실루엣만 드러나는 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본인 기억의 속성을 재현하는 한편 본인이 만나는 주변의 이미지 속의 모든 형상들을 평면의 실루엣으로 환원시키고, 이렇게 드러난 실루엣 형상을 마치 단층처럼 매끈한 질감과 거친 질감으로 나뉘어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실루엣으로 환원된 형상을 통하여 기억의 속성을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기억은 언제나 사실의 전체 대신에 부분만을 재생하며, 나아가 구체적 사실을 추상적 사실로 변질시키기도 한다.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처음의 말과 나중의 말이 서로 다른 것처럼 기억의 재생능력은 불완전하다. 이는 사실의 왜곡은 물론 기억 자체의 한계가 그 원인이지만, 그 과정에 주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의 표현으로서 기억의 이미지들에서 야기된 일상적 사물들을 삶 속에서 일어난 상황과 혼적으로 야기된 본인의 잠재된 감정의 표출로써 조형화시킨다. 실루엣의 형체는 전체 윤곽선에 의한 윤곽만을 드러냄으로 단조롭기는 하지만, 사실적인 표현과는 상대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 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인은 삶

과 관련된 기억으로부터 인식되어진 일상사물을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끼집어내어 회화라는 표현 매개체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1]부분②는 입체적인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로 사물을 보고 인식할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특성을 인지하여 묘사하고 있다. 재현적 표현양식으로 명확하게 기억 속에 인지된 사물의 이미지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기능의 묘사로 적용하여 명암법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입체적 사물은 실루엣 작업으로 단순화 시킨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되어짐으로써, 시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분화 된 색면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상상의 공간으로 형태와 내용상으로 연결된다.

회화는 형상과 색채를 통하여 표현되는 본인의 언어로써 일상성 속에 내재된 본인의 잠재된 기억들을 미적 경험을 토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일상의 미적 경험들을 구조화 시켜 캔버스에 옮겨짐으로써 본인만의 미적특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심리적인 감정과 기억 되어진 것들을 미적경험을 통해 조형화시켰다. 또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표명되기 힘든 감정이나 분위기, 좀 더 나아가서는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감정의 이미지를 조형화 시키고자 하였다.

2) 체험된 사물과 공간의 표현

프로이트(S.Freud, 1856-1939)는 “공간 분할의 비례 감각은 초자아의 선물이다.” 라고 주장 하였다. 즉, 좋은 형(形)이란, 우리가 단순히 좋은 것이라 배웠기 때문에 좋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성과 탁월한 기능성을 위해서 균형과 통일을 요구하며, 좀 더 자극적인 감동을 위해서 적절한 변화와 긴장을 요구하게 된다. 그 예로 정사각형과 원형은 나무랄

데 없는 형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기(動機)심리학(心理學)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균형에 대한 욕구에서 발로되는 것이고, 좋은 균형이란, 전체 원리에 규합하여 작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15)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과학자는 관찰(Observation)이라는 구체적인 지각양태로 보며, 예술가는 관조(Contemplation)라는 미적 지각의 양태로 본다. 이러한 미적 지각은 어떠한 대상의 객관적 이미지가 작가의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반응을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표현되어진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미적경험을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진 반응.” 이라 정의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미적 경험이란 삶의 경험과 감정들에서 파생된 기억으로서의 이미지이다. 본인은 기억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고 이를 순화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재현된 미적 경험으로 중요한 창작 동기가 된다.

일상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 버렸다. 우리가 무심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일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 없이는 일상을 나타낼 수 없으며 그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모두 일상적 경험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자아와 외적 상황의 만남으로 체험되는 인간내부의 심적 표현이며, 일상 속에서의 삶의 체험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표현해 나간다.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개인적인 시각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깨닫지 못하던 사물의 본성과 만나면서 내적 가치로 승화 된 새로운 미를 표현하고 있다.

예술가의 영혼은 체험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며 진실한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생명력을 갖춘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주관

15) 루돌프 아른하임, 「예술의 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p149-150

적 시선은 모든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낸다. 즉 세밀한 영혼이나 감정이 일치되어야 사물을 표현하는데 의미를 가진다.¹⁶⁾

본인에게 있어 일상사물의 이미지는 어제의 회상과 오늘의 체험, 다가올 내일을 담는 존재확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현실세계와 만나게 되는데, 본인의 작업에서 공간구성을 이분화 시킨 것은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하좌우의 직선에 의한 공간 분할은 균형감과 동시에 적절한 변화와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물의 표현방식에서 입체적 이미지와 평면적 이미지의 교차와 겹침은 지나간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 공간의 모호함으로 드러난다.

본인에게 캔버스는 단순한 평면공간이 아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차원 평면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기억이 자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그림삽입이 아니라 새로운 입체적 초현실성으로 인하여 사물의 접촉감을 표현해내는 화법은 매우 지각적 표현이다. 늘 존재하고 보여 지기에 이미 지루해지고, 상투적이고, 획일화된 일련된 사물들은 우리의 인식을 대상으로부터 해방시켜 또 다른 조형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관점에서 선택된 사물들은 여러 가지 작업방식으로 제작해 기능성만을 강조하거나 고착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서 주관화된 기억의 단면을 감정이입 시키는 사물로 변화를 모색한다. 즉 일상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16) 르네위그,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열화당, 1979, p27

3) 색채와 시간성

색채는 회화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형요소 중 하나이다. 색은 다양한 표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며 작가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형태는 색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색채는 형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을 한다. 같은 형상이라도 색채에 따라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인상을 감상자에게 남길 수 있다.

색채는 조형요소 가운데 가장 감각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체험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특수한 인상을 전달해 주는 언어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회화에서 직관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감각적으로 대변해주며 다양한 표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서 내면적 표현에 있어 변형을 가능하게 하고, 독특한 특성으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을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색을 지각하며 경험한다. 데이빗 카츠(David Katz, 1884-1953)는 색과 형에 관해 “색채는 형태보다 감정에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며 형태가 단순화 할수록 그 결부는 더욱 친밀해진다.” 고 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색채 표현에만 목적을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를 형식으로 취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발휘하기 위해 색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형태를 단순화시킴으로서 의미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¹⁷⁾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색채가 풍부할 때 형태도 풍부해진다.” 고 했다. 사물에 대한 특수한 색채는 감정표현의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색채는 색 자체의 선이나 형태의 조형요소를 대신하고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형요소로서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

17) 요하네스 이텐, 「색채와 예술」, 김수석 역, 지구문화사, 2008, p.11

할을 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색채는 대상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본인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회화적인 언어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대신하는 조형요소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인은 이분화 된 평면공간에서 입체적인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 모노톤(mono-tone)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모노톤은 원래의 색에서 하나의 색만을 부각시켜 단색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써 회상 혹은 추억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본인은 작품 속에서 하나의 단색으로 전체의 톤을 구성하여 색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바래진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가 내포한 상징성이나 고유의 색과는 무관하게 시간에 의한 색의 자연스러운 바래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빛바랜 사물이나 긁혀진 흔적을 지닌 사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래서 옅어지는 시간성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물에 대한 기억이나 흔적을 유추하고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는 계기로서 부분적으로 색채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채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이탈하여 자신이 부여하고자 하는 색으로 대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도판8>나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도판9>와 같이 완전히 주관적인 색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사용한 색채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색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색채는 비교적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 그대로를 묘사한 것과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바래진 기억을 따라서 변형된 색으로 표현한 사물이 공존한다. 이는 인식된 기억의 정도에 따라 형태를 세부적으로 그리거나 단순화 하여 반영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배경은 색면으로 분리하고 있고, 배경에는 밑면에 어두운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유화물감을 두꺼운 질감으로 덧바름으로써 이중성을 보

여 주고자 하였다.

본인이 주로 유화작업을 하는 이유는 유성물감이 갖는 매력 때문이다. 유화물감은 사용하기에 따라 풍부한 양감과 두께 그리고 질척거리는 끈적함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감으로 인한 표현의 두께에서 오는 질감의 형성에 의해 화면의 깊이감을 추구할 수 있다. 본인의 그림에서 마띠에르 또한 색채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질감의 층위에 따른 음역의 변화에 따라 색은 깊고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3. 작품 분석

본인의 작업은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등을 적은 그림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작업 속에 등장하는 물체들은 하나의 문자가 되어 캔버스 위에 나열되고 작품이 완성되면 하나의 문장이 탄생한다.

[작품1]

가족과 관련된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물들이 있다. 가족이 좋아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이야기와 우스갯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예쁜 장식품, 오래된 흔적이 뵈는 물건 등에서 삶의 모습인 시간과 공간이 배어있다. 이러한 평범한 사물을 특별한 것으로 바뀌가는 과정은 연금술적인 과정의 하나다.

‘연금술’은 이미 마르셀 뒤샹, 요셉보이스 등 현대미술의 주요 거장들을 익히 사로잡았던 개념인 바, 예술가들의 작업과 상상력을 통해 범상한 사물이 비범한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하는 현상을 주목한 용어이다.

본인의 작업은 사물이 갖고 있는 기억된 이미지를 기호와 상징화하여 일상의 삶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가는 과정이다. 이 작품은 흑과 백의 극도로 절제된 색채와 선과 면의 결합을 통해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속 극명하게 나타나는 화면분할은 과거와 현재, 시공간을 나누는

의미로 표현되고, 중심에 사물을 단독으로 설정하고 주변을 단순화 시키는 강약의 극한적인 대비를 통해 엄격함과 유일무이의 존재를 강조한다.

상징화된 사물로서 'iris'의 의미는 신비로운 사람 즉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상징화 시켰다. 배경에 색면으로 나뉜 연두색계열의 평면은 풀밭이나 식물의 공간 등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형성하였다.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의 색채로써 사용되어졌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며 안정과 휴식을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색채이다.

[작품1]부분①과 [작품1]부분②는 질감과 표현방식의 양면성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대비적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 첨가되었다. 부분①의 질감은 유화물감에서 느껴지는 재료 표면에 따른 특유의 재질감으로 끈적임과 광택을 표현하고, 입체적인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작품2]

'Mother' 을 보면 기억 속에 상징되는 사물로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다. 작품 속 사물은 식물과 가구, 킨팅문양이 등장한다. 명암법으로 묘사한 식물과 가구 위에 커튼으로 오버랩 된 선은 시간이 지나 반복되기도 하고 소멸되거나 왜곡되기도 하는, 뚜렷하지 않은 기억처럼 분할된 화면에서 지움과 수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조심스러움과 가다듬는 마음으로 미세한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화면에 드러나는 사물에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담겨있다. 그녀의 따뜻함과 섬세함 여성스러움이 여실 없이 드러나 있다. 그림의 어두운 바탕에 떨어지듯 가라앉은 밝은 면 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밝혀주는 통로로서 해석되는데 그녀의 외로움과 힘듦 속에 한 줄기의 희망을 은유하고 있다.

[작품3]

일상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다는 것이며 익숙하기에 무심히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진 공간은 인식하게 되는 개개인의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표현된 거실의 공간은 익숙한 사물과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상의 한 단편적 공간을 상징되는 사물로 구성된 작업이다.

표현방법은 평면적인 색면과 명암법에 의한 입체적 표현 그리고 단순화된 면과 날카로운 선이 결합된 표현방식을 통하여 화면에 긴장감을 주고자 하였다.

구성방식은 비워놓은 곳을 채우고, 생략하거나 그려 넣는 방식으로 화면을 이끌어가고 있다. 색채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 요소를 융화하기 위해 2개로 구획된 색면의 색을 색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호한 중간 색조를 사용하였다.

[작품4]

‘음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으로 사물을 조합시킨 작업이다.

보여 지는 화면에는 꽃과 트럼펫, 헤드폰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한 개의 사물은 선만으로 외각을 표현하였고, 다른 사물들은 색면과 명암법으로 표현하였다.

선으로 표현된 헤드폰은 ‘듣는다’는 뜻에서 표면적인 외각 형태만으로 표현했고, 트럼펫과 활짝 핀 꽃은 이분화 된 배경과 함께 상하로 나뉘어져 한 쪽부분은 명암법으로 다른 쪽은 평면으로 형을 나누어 표현 되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한 뚜렷한 기억과 형태만 인식하여 단순화한 어렴풋한 기억의 교차하는 본인의 기억과 인식이 가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방식으로 사물

을 보고 인식하며, 기억하여 끄집어내는 정도에 따라서 묘사의 정도가 달라진다.

[작품5]

우리는 누구나 콤플렉스를 안고 산다. 어떤 이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지배당하고, 어떤 이는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건 콤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은 없애버려야 할 것도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콤플렉스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다. 이 작품은 본인이 바라보는 콤플렉스를 관조적인 입장으로 그려본 작품이다. 콤플렉스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에 있어서 새카만 빨데안경과 활짝 피지 못한 꽃 털이 난 헤드폰이 명암법으로 표현되었다. 색감은 갈 길을 잃고 막혀 있는 듯 오래된 느낌의 색으로 표현으로 사물의 인식 정도의 차이를 조화롭게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중앙에 위치한 붉은 색의 원피스 패턴은 사물들 속에 존재하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과 대비되게 중첩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선명한 색을 입혔다. 자신감은 곧 자신의 표현으로 사물들 속에 존재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작품6]

본인은 항상 일상 속에서 내 삶속에 주인공은 나 자신이지만 세상은 나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 작품은 항상 자유를 지향하지만 병속에 갇혀 전전긍긍하며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본인을 꽃에 비유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듯 기다리고 있는 봉오리와 더 이상 화사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만개한 상태의 꽃이 꽃병에 그려져서 존재한다.

[작품7]

본인의 거실 한 구석에는 벽에 발린 포인트 벽지 앞에 도자기가 놓여있다. 그 장면을 보고 본인은 포인트 벽지의 화려하게 수놓인 꽃문양이 실재인지 그 앞에 놓인 깨끗한 도자기가 실재인지 구성의 앞뒤를 상상해 본 경험이 있다. 도자기가 실재사물이고, 벽지는 종이에 그려진 무늬이지만 그 순서만 바뀌므로써 벽지의 문양이 실재처럼 보이게 되었다. 도자기와 그 도자기위에서 흘러내리는 물감을 머금고 있는 붓. 이 조화는 지금 현재 도자기가 회색 도자기로 덮히는 찰나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실재 사물인 도자기는 무채색으로 빛을 잃고, 포인트 벽지의 문양만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그 형상을 더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작품8]

이 작품은 가을의 달콤한 핑크빛 정취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가을을 상징하는 사물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부추긴다. 전체적인 색채는 몽상과 낭만의 색인 분홍색을 띄고 있다. 이 작품에서 관람자는 파스텔 톤(tone)이 만들어낸 평온함과 동시에 사물의 흥미로운 배열로 위태로움을 함께 느낄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텍스트는 의미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체계이지만 본인의 캔버스 위에 나열된 텍스트는 의미의 전달로 사물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치는 않는다. 그것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것과 그 색과 이미지에만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작품8]부분①은 책의 표면적인 부분만 인지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책의 일부분을 단순화 하여 두께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8]부분②는 텍스트에 두께를 위해 찍어내는 방법으로 형상을 더 부각시켰다.

[작품9][작품10]

중독현상의 이면에는 공허함이 놓여있다.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마음속에 채워야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구입하는 물건들은 잠시나마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물건을 사고 싶은 중독현상을 사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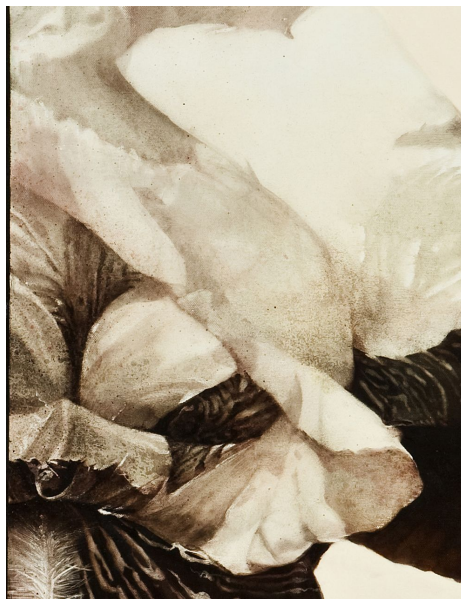
[작품9]와[작품10]의 등장하는 사물은 본인이 소장한 사치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에 대각선의 위험한 구성은 위태로움을 부각시키고, 강한 색의 콘트라스트로 시점의 변화와 역동성 있는 화면을 그린다. 또한, 생략된 빈 공간에서는 소유함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1] Father 112.1x145.5cm oil on canvas 2010



[작품1]부분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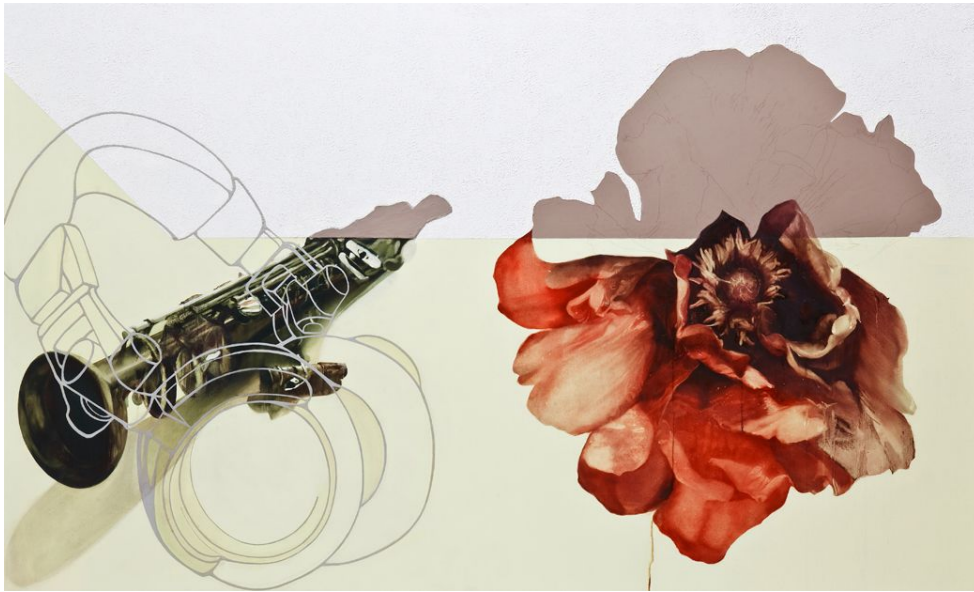
[작품1]부분②



[작품2] Mother 145.5x97.0cm oil on Canvas 2009



[작품3] Living room 72.7x90.9cm oil on Canvas 2009



[작품4] Music pleasure 145.5x97cm oil on canvas 2009



[작품5] Complex 145.5x97.0cm oil on Canvas 2009



[작품6] Flower 112.1x193.9cm oil on canva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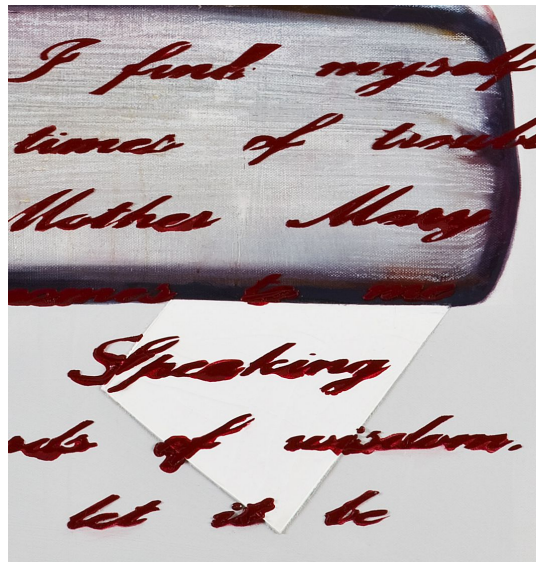
[작품7] Flowerpot 91x116.8cm oil on canva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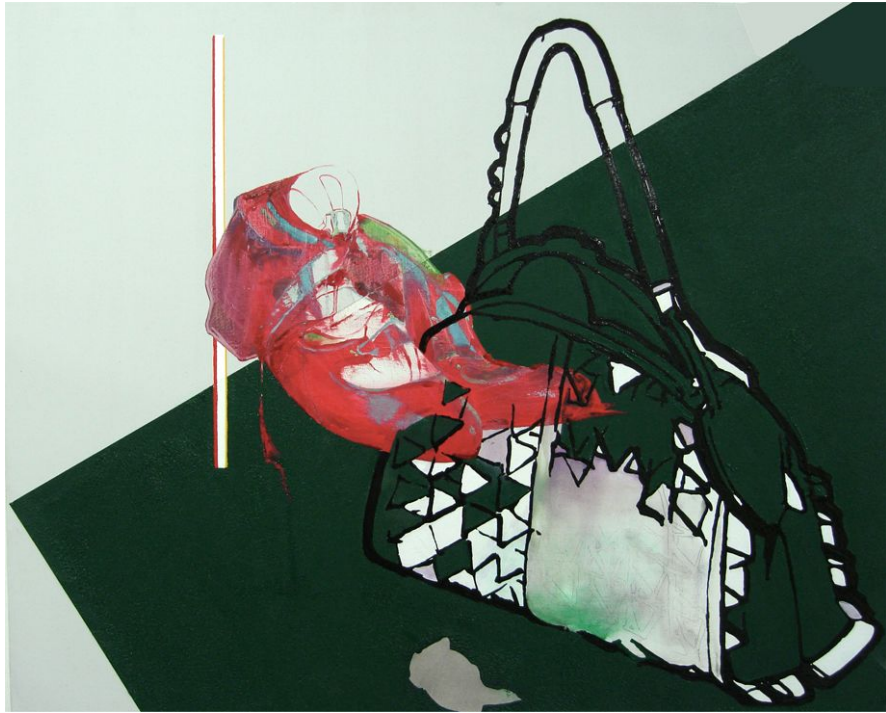
[작품8] Autumn 91x116.8cm oil on canvas 2009



[작품8]부분①



[작품8]부분②



[작품9] Shopping holic 90.9x72.7cm oil on canvas 2009



[작품10] Perfume 90.9x72.7cm oil on canvas 2009

Ⅲ. 결 론

일상은 곧 삶과 직결된 체계이다. 본인은 사소하고 평범한 물건들이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의 소산이 되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해 왔다.

본인의 작업에서의 일상적 사물은 개인적 체험에 중점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물의 외형적 이미지보다 내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소재로 하여 사물에 내재된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상의 행위의 흔적을 통하여 본인의 삶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애착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했다. 일상 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물들을 작업 안으로 끌어들여 다시금 주목받는 사물로 표현하고자한 것이다. 사물이 인간의 삶에서 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물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본인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재해석하였다.

현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본인의 공간을 표현한 작품들은 기억의 조각이 펼쳐져서 완성된 ‘일상’이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다. 그 공간은 주변에서 흔하게 지나치며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생활 속 장면일 수도 있고, 상상에 의한 가상의 세계 일 수도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이렇게 삶 속에서 저장된 여러 가지 기억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또 다른 삶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평범하고 친숙하여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의 파생된 장면을 표현하였다.

조형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던 사물의 단순화와 입체적사물의 결합은 사물 이미지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함으로서 형상과 배경을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각을 통해서 표현된 사물을 재창조 하였다. 색조는 무채색의 톤으로 오랜 시간 사용된 사물의 시간성을 나타내고, 복잡한 묘사를 통해 단조로움을 줄였다.

일상적 사물의 이미지는 그저 기억된 범주 안에서 되풀이되듯 판에 박힌 형상만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일상의 익숙한 사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시키고, 보아왔던 것만을 계속적으로 보게끔 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에 지금껏 보아온 사물 이미지에 우리의 의식은 고정되고 감금된다. 오랫동안 믿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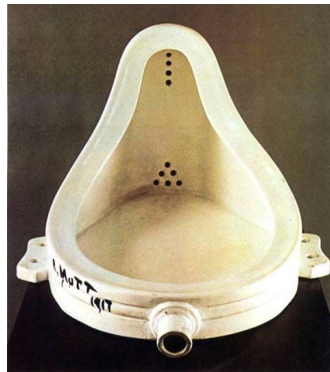
본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비록 출발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사물을 통한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개인의 일상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 감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은 일상의 경험과 흔적을 작업으로 옮기는 행위를 넘어선 자신의 삶 자체가 작품으로 승화 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작품에 주관적 감정 상태를 사물의 형상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관찰하고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며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서 쉽게 간과해 버리기 쉬운 일상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물과 경험의 조합이라는 총체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하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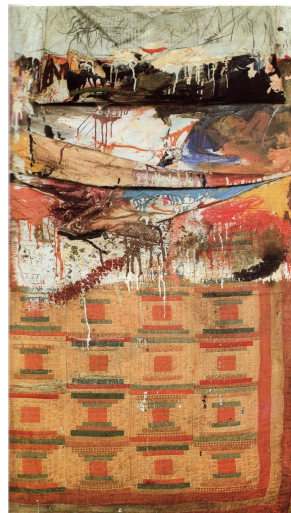
<도판1>Pieter Claesz, Vanitas Still-Life,
oil on canvas, 39.5x56cm, 1630



<도판2>Marcel Duchamp, Fountain
ready-made, 63x48x35cm, 1964



<도판3>Andy Wohol, Brillo Box Installation,
acrylic and silkscreen on plywood box,
17.35x17.35x14.2inches 1968



<도판4>Robert Rauschenberg, Bed,
mixed materials and paint, 211x492cm, 1955



<도판5>Jim Dine, Rancho woodcut Heart,
painting on woodcut, 121.29x102.87cm, 1982



<도판6>Gary Humn, Pollen and Coffee, 2002
gloss paint on aluminium, Diameter: 181.5cm



<도판7>Kara Walker,

좌 slavery! slavery!, cut paper on wall, 370x2590cm, 1997

우 Darkytown Rebellion,

cut paper&projection on wall, 180x396inches, 2002



<도판8>Vincent van Gogh, Vincent's Chair,

oil on canvas, 93x73.5cm, 1888



<도판9>Henri Matisse, La Blouse roumaine,
oil on canvas, 92x73cm, 1940

참 고 문 헌

김경운 「일상의 연금술」, 서울, 2004

서동욱 「일상의 모험」, 민음사, 2005

진중권 「춤추는 죽음」, 세종서적, 2008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 지와 사랑, 2000

하마모토 다카시 「색채의 매력」, 이동민 역, 아트북스, 2007

Eric Booth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에코의 서재, 1999

Dabney Townsend 「미학입문」, 장호연 역, 이론과실천, 2000

Gilles Deleuze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민음사, 2004

Henri Lefebvre 「현대 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주류, 1990

Johannes Itten 「색채와 예술」, 김수석 역, 지구문화사, 2008

K.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2

Luice e smiht 「모더니즘 이후」, 임영방, 김춘일 (역),

세운출판사, 1997

René Huyghe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열화당, 1979

Rudolph Arnheim 「예술의 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ABSTRACT

Combination of mundane objects in divided flat space
-Focusing on the personal Artworks-

Yim, Hye-r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imed to understanding the position of my works, based on those exhibited in my solo show 'The Still: Logical Conversation' which included the projects carried out from 2009 to 2010, and analyze the develop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images in terms of their meaning and method.

The works created under the theme 'The Still: Logical Conversation' are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and memories and symbolize daily objects and space. Also, by implying pieces of memory within symbolic objects, the studied subjects were objectified and the experience and situation were expressed in artistic form.

Art is a product of experiences in real life, which is why the surrounding and daily life of people are important to art. Individuals' daily lives and memories are often easily ignored and perceived to be boring, but they can also project fascinating essence of life.

Although I use mundane objects that can be found in commonplace space for my works, they have important meaning in the artwork after being recreated from my experience, and those objects express suppressed emotions from myself.

I try to visualize both the visible and invisible aspects by looking at the objects in daily life not simply as material stimulation but something with a meaning. Also, I allow for new discovery in all mundane things that I experience, trying to express the inside of myself through external experience.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daily life in art, and attempts to find out what the artists try to express with mundane objects. Also, I explained how mundane objects became the theme of my works and their significance for me. Further, another objective is to understand the position of my works in contemporary art scene and develop future direction.